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2. No. 3, pp. 371-379, 2021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1.12.3.371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 효과

이윤주[1], 안성윤[2*]
[1]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배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Yun Ju Lee[1], Sung-Yun Ahn[2*]
[1]Professor, Dept. of Nursing, JEI University
[2]Professor, Dept. of Nursing, Pai Cha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18년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 21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SPSS 22.0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의해 매개하는 정도는 Baron과 Kenny의 지침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테스트를 이용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r=.62, p<.001), 거부민감성과 행복감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33, p<.001).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사이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3.769, p<.00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만족스런 대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거부민감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 자아존중감, 행복감, 거부민감성, 매개효과,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happiness among nursing students. From May 30 to June 10, 2018, 214 nursing students from a university were selected for convenience,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The degree to which the rejection sensitivity of nursing students is mediated by self-esteem and happiness was determined following the guidelines of Baron and Kenny, and the Sobel test was used to verify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ed effect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happiness among nursing students(r=.62, p<.001) a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happiness(r=-.33, p<.001). A partially mediated effect (Z=3.769, p<.001) of rejection sensitivity was fou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Therefore, education and activity programs are needed to increase th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and help them maintain a satisfactory college life.

Key Words : Self Esteem, Happinesses, Rejection sensitivity, Mediating effect, Nursing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Sung-Yun Ahn(syahn@pcu.ac.kr)
Received January 4, 2021
Revised February 26, 2021
Accepted March 20, 2021
Published March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행복감은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으로 제시되는데, 특정 시점이나 단발적 사건보다는 일련의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역동적인 감정이다[1]. 행복감은 외적요인보다는 자신과 관계된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주관적 행복감 또는 주관적 안녕감으로 제시되고 있다[2-4]. 최근 더욱 급격해진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인간의 삶은 물질적으로 보다 풍성해진 반면, 개인의 심리적인 행복감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5].

대학생의 행복감은 현 상황을 수용하며 만족함, 꿈을 위한 목표 달성,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관계에서의 신체·정신적 안위감을 포괄한다[6]. 행복감은 건강한 삶을 지속시킴에 있어 필요한 긍정적인 개념으로[7] 대학생의 행복감 수준은 그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삶을 살아내어 가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제공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은 일반적인 대학생들에 비해 의료인이 되기 위한 엄격한 교육과정과 관련한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한다는 심리적 중압감 등을 경험한다[8-11]. 이로 인해 대학생활의 적응이나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12,13] 의대생을 포함한 다른 전공 대학생들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행복감이 높은 경우 다른 사람의 안녕감에도 관심을 더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 돌봄의 역량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다[15]고 한다. 무엇보다도 장차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시기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는 태도와 인성적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6].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은 단편적으로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비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므로[13]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경제요인, 전공만족도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의 개인 내적요인과 사회적 지지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13,17,18].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이나 존엄한 가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19] 자아존중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에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반면[12]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학업 스트레스,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5]. 간호대학생의 성격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데[20] 학교생활의 어려움은 대학생활의 적응과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계성향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 Koo와 Kim[21]의 연구에서 대인관계의 유대감에서 비롯되는 긍정적인 관계경험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거부민감성은 타인으로부터 거부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걱정하고 불안하여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이다[22]. 거부민감성 수준에 따라 거부경험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동기체계가 다르게 작동됨으로써 정서, 사고 및 인지양식, 행동에서 개인차가 발생하게 된다[23]. 거부민감성이 높은 대학생은 관계에서 오는 불특정의 거부 경험을 자신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24].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거부단서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여 거부 관련 정보를 자신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경향[25]이 있으므로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부민감성이 높으면 주위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여 행복감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 정서 표현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26], 행복감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거부민감성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27]에 따르면,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부모, 내적요인, 학생 및 학교 변인 등이고 정서 및 성격, 관계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존 연구들을 볼 때 거부민감성이 행복감과의 상당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및 건강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부민감성에 대한 관심을 통해 사전에 거부민감성을 낮출 수 있는 기회마련이 필요하다. 기존 국내 연구에 간호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자아탄력성[28]이나 사회적 유대감[29]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있지만 아주 적은 편이다. 또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나, 자아존중감, 행복감, 거부민감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거부민감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거부민감성의 매개역할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인지적 관점에서 거부민감성을 낮춤으로써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중재프로그램

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사이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거부민감성 및 행복감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거부민감성 및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자는 I지역에 있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 214명으로 하였다. 참여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에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20, 검정력 0.80으로 확인한 결과 191명이 산출되었다. 탈락률 15%를 고려하여 220명에게 자료 수집한 결과 불성실한 자료 6부를 제외하고 214부를 사용하여 수거율은 97.3%였다. 자료는 2018년 5월 30일부터 2018년 6월 10일까지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며 모든 자료는 코드로 암호처리 되고 익명성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설문 중간에라도 철회 가능하고 설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어떠한 위해가 없음을 설명한 후 이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이해한 대상자로부터 동의 사인을 받고 자료를 배포하였다. 설문작성에 대해 소정의 상품(간식)을 제공하였다.

2.3 연구측정도구

2.3.1 자아존중감(Self Eestem Scale, SES)

자아존중감도구는 Rosenberg[30]가 개발하고 Jeon(1974)[31]이 번안하여 긍정적 문항 5개, 부정적 문항 5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4점 리커트 척도이고 최소 10점에서 최대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Rosenberg[30]가 개발당시 Cronbach's alpha=.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74이었다.

2.3.2 행복감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 문화특수성과 보편성을 반영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단축형 행복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3]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요인은 삶의 만족, 긍정 정서, 부정 정서이며 각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부터 7점까지 부여하는 7점 리커트 척도이다. 행복감 척도의 총점은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의 합에서 부정 정서의 합을 뺀 것으로 최저 -15에서 최고 39점이고 총점이 높을수록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는 .86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780이었다.

2.3.3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은 상대방과의 상호과정에서 거절당할 것을 고려하는 정도로 Park과 Yang[32]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예기분노, 예기불안, 과잉반응 및 거부지각과 같은 4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클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alpha=.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25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거부민감성 및 행복감정도는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거부민감성 및 행복감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거부민감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거부민감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매개하는 정도는 Baron과 Kenny[33]가 제안한 매개효과 절차를 활용하였다. 1단계는 자아존중감이 거부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2단계는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3단계는 자아

존중감과 거부민감성을 동시 투입하여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84.6%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고, 나이는 평균 23.1세이었고, 1학년이 31.3%로 가장 높은 참여를 보였다. 참여자의 64.5%가 종교가 없었으며, 49.1%의 참여자들이 30만원 이상의 용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65.9%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or Mean(SD)
Gender	Female	181(84.6)
	Male	33(15.4)
Age(year)	-	23.1(4.1)
Grade	Freshman	67(31.3)
	Sophomore	49(22.9)
	Junior	59(27.6)
	Senior	39(18.2)
Religion	Yes	76(35.5)
	No	138(64.5)
Money for 1 month	≤ 100,000	13(6.1)
	100,000~200,000	30(14.0)
	≤200,000~300,000	66(30.8)
	≥300,000	105(49.1)
Part-time job	Yes	141(65.9)
	No	71(33.2)
	Missing	2(0.9)

3.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거부민감성 및 행복감 정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28.7점(문항평균 2.9점)이었으며, 거부민감성의 평균은 42.6점(문항평균 2.7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행복감 수준은 평균 15.3점이었으며, 최소 -15점부터 36점까지였다. 행복감은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의 합에서 부정 정서의 값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되어 문항평균값은 제시하지 않았다.

Table 2. Levels of self-esteem, rejection sensitivity and happiness

Variables	Min.	Max.	Mean	SD	Item	
					Mean	SD
Self-esteem	10	40	28.71	5.28	2.87	0.53
Rejection sensitivity	16	100	42.64	12.68	2.67	0.79
Anticipated rage	5	25	14.24	4.42	2.85	0.88
Anticipated anxiety	4	55	9.93	4.62	2.48	1.16
Overreaction	4	20	10.57	3.86	2.64	0.97
Rejection perception	4	15	7.89	3.03	2.63	1.01
Happiness	-15	36	15.29	9.11	-	-
Satisfaction of life	3	21	14.52	3.89	4.84	1.30
Positive emotion	3	21	13.72	3.99	4.57	1.33
Negative emotion	4	31	12.96	4.15	4.32	1.38

3.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거부민감성과 행복감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행복감 정도는 자아존중감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62, p<.001), 거부민감성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3, p<.001). 거부민감성과 행복감 사이에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거부민감성의 모든 하위요인은 행복감의 부정 정서를 제외하고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거부민감성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36, p<.001)

3.4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사이의 거부민감성 매개효과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간 거부민감성의 매개변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27]의 3단계 검증절차를 활용하였다.

1단계 자아존중감이 거부민감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거부민감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6, p<.001). 2단계 회귀분석에서 자아존중감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β=.62, p<.001), 설명력은 37.9%였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rejection sensitivity and happiness

	1	2	3	4	5	6	7	8	9	10
	r									
1.Self-esteem	1	-.17*	-.33**	-.35**	-.32**	-.36**	.65**	.56**	-.22**	.62**
2.Anticipated rage		1	.48**	.52**	.50**	.80**	-.17*	-.15*	.06	-.17*
3.Anticipated anxiety			1	.52**	.44**	.79**	-.28**	-.25**	.12	-.28**
4.Overreaction				1	.61**	.82**	-.30**	-.33**	.12	-.33**
5. Rejection perception					1	.76**	-.26**	-.28**	.14	-.30**
6. Rejection sensitivtiy						1	-.31**	-.31**	.14	-.33**
7. Satisfaction of life							1	.61**	-.29**	.83**
8. Positive emotion								1	-.20**	.79**
9. Negative emotion									1	-.67**
10. Happiness										1

**p<.01, *p<.05

Table 4.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Step			B	SE	β	t	p	Adj R^2	F	p	Sobel test	
											Z	p
Step 1 (route A)	Self-esteem -> Rejection sensitivity		-.869	.15	-.362	-5.65	<.001	.13	31.92	<.001	3.77	<.001
Step 2 (route B)	Self-esteem -> Happiness		1.067	.09	.618	11.44	<.001	.38	130.91	<.001		
Step 3 (route C)	Self-esteem	Happiness	.989	.10	.573	9.98	<.001	.39	68.91	<.001		
	Rejection sensitivity		-.089	.04	-.124	-2.16	.032					

3단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거부민감성을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2단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2단계: β=.62, 3단계: β=.57). Table 4와 같이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사이에서 거부민감성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Z값이 1.96보다 크므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Sobel T: Z=3.77, p<.001). 이와 관련된 부분 매개효과 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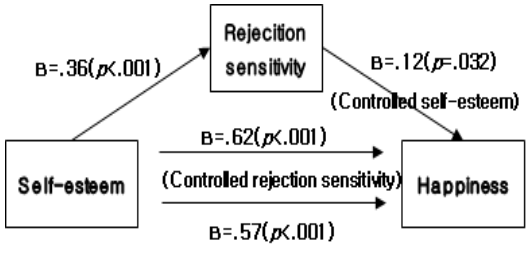

Fig. 1.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in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happiness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거부민감성 및 행복감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고 거부민감성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간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28.71점(문항 평균 2.87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Jung과 Park[12]의 문항평균 2.93점과 유사하였으며, Jo와 Park[34]에서 자아존중감의 총점 31.2점, Nam과 Lee[13]의 문항평균 3.42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 평균은 23.1세이고, Park, Jung과 Park[12]의 대상자의 22.69세이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이지만, Jo와 Park[34]의 대상자는 4학년이 포함되지 않았고, Nam과 Lee[13]의 대상자는 20.71세로 낮은 연령인 것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Kim과 Lee[35]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낮은 연령군이 높은 연령군보다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본 결과는 연령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정도는 15.29점으

로 최저점수 -15점과 최고점수 39점 고려 시 중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이라는 동일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주된 차이가 학년인 것으로 확인된 다른 연구들과 행복감을 비교해 본 결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36]의 14.6점 보다는 높았으며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과 Park[18]의 16.4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임상실습과 이론수업을 병행하는 과중한 학업과정의 영향 하에 있는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행복감[36]에 비해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이러한 차이는 간호대학생의 학업, 취업 등에 대한 상당한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들[17,18]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거부민감성 정도는 본 연구에서 42.64점(문항평균 2.67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 및 타 전공계열의 전문대학생을 포함한 연구[37]의 거부민감성 40.6점(문항평균 2.5점)보다 약간 높은 수치였다.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8]에서 측정도구가 상이하긴 하나 문항평균으로 볼 때 1.6점(6점 기준)으로 해당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학업스트레스, 경쟁 등의 압박감으로 인해[10,17] 대인관계에서 상황에 대한 불안이나 각성수준이 높아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간호대학생은 예비간호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에 간호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인관계를 지속해야 한다. 이에 거부민감성이 높다는 것은 원활한 간호업무를 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추후에는 간호대학생들의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별 수준과 행동패턴을 사전에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별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거부민감성 및 행복감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간 정적 상관관계(r=.62, p<.001))는 Nam과 Lee[13]의 연구 결과(r=.67, p<.001)와 거의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행복감과 거부민감성 간 부적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파악한 연구가 없어 유사연구를 살펴보았다. 간호대학생의 기질 및 성격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연구[39]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위험회피와 부적 상관관계(r=-.67, p<.001), 사회적 민감성과 양적 상관관계(r=.22, p=.001)를 나타낸 연구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간호대학생들의 행복감 수준이 대학생활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40]을 고려할 때,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거부민감성과 관련된 개인 내적자원의 긍정적 강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간의 관계는 다양하게 연구[13,17,34]되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을 포함하여 직접적으로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이에 변수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 문제에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한 연구[41]에서 부분매개함을 제시하고 있어 매개효과 부분에 있어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들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그들의 삶의 의미도 높아질 뿐 아니라[42],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대한 인식은 장차 돌봄을 주된 업무로 할 간호사가 되는 데 꼭 필요한 역량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이 부분매개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은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을 낮추는 인지적 접근을 활용할 때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데 본 연구의 함축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을 위한 인지적 접근 방식으로는 인문사회교과목으로 편성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거부민감성의 개념을 알려주고, 자가 점검하도록 한 후 학생 간 상황에 따른 거부 민감 요인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향후 인지적 관점에서 거부민감성을 낮추는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나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해볼 것을 제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거부민감성과 행복감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부민감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의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후 다양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향후 인지적 관점에서 거부민감성을 낮추는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나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해볼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T. D. Giligan & E. S. Huebner. (2002).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reports of adolescents: A multitrait-multimethod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7)*, 1149-1155.

[2] E. M. Kim, Y. H. Yang, H. Lee & M. Yu. (2016).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Korea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2(3)*, 294-303.
DOI : 10.5977/jkasne.2016.22.3.294

[3] E. M. Suh & J. Koo. (2011). A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COMOSWB):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1)*, 95-113.

[4] M. K. Kim. (2011). A Phenomenolgical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Happiness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10)*, 1-34.

[5] S. H. Lee & S. J. Kim. (2012). The Degree of Perceived Stress,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3)*, 453-464.
DOI: 10.5932/JKPHN.2012.26.3.453

[6] H. N. Lee. (2018). Concept Analysis of Happiness on Korean university students using Hybrid Mode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1)*, 357-369.
DOI: 10.5762/KAIS.2018.19.11.357

[7] G. H. Kim & K. H. Kim. (2012).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in first year wome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1(2)*, 149-157.
DOI : 10.12934/jkpmhn.2012.21.2.149

[8] S. K. Cha & E. M. Lee. (2014). Comparison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Students of Other Major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650-658.
DOI : 10.5977/jkasne.2014.20.4.650

[9] W. H. Jun, S. Y. Lee & K. L. Lee. (2017). Mediating Effect of Gratitu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1(3)*, 528-539.
DOI: 10.5932/JKPHN.2017.31.3.528

[10] Y. H. Kim. (2011). Effects of Depression, Self-esteem and Ego Identity on Test Anxie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4)*, 2003-2013.

[11] M. Pulido-Martos, J. M. Augusto-Landa, & E. Lopez-Zafra (2011). Sources of Stress in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of Quantitative Studies.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59(1)*, 15-25.
DOI: 10.1111/j.1466-7657.2011.00939.x|

[12] S. A. Park, S. H. Jung & H. S. Park. (2018). A Study on Adaption to School Life in a Colleg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HSS21), 9(3)*, 1301-1314.
DOI: 10.22143/HSS21.9.3.95

[13] M. H. Nam & M. R. Lee. (2014).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dex of Health Behavior,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0)*, 363-374.
DOI: 10.14400/JDC.2014.12.10.363

[14] W. H. Jun, K. S. Cha, & K. L. Lee (2015).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1(2)*, 276-284.
DOI: 10.5977/jkasne.2015.21.2.276

[15] L. Hoggard. (2005). *How to be happy*. London : B.B.C. Books.

[16] K. H. Jo (2011). Perception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oward Happiness: A Q-Methodological Approach.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2)*, 178-189.
DOI: 10.5977/jkasne.2011.17.2.178

[17] S. H. Kim & S. H. Lee. (2015).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27(1)*, 63-72.

[18] J. Y. Kim & H. S. Park. (2015). The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1)*, 545-559.

[19] M. Rosenberg, C. Schooler, C. Schoenbach & F. Rosenberg. (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1)*, 141-146.
DOI: 102307/20966350

[20] H. S. Kim. (2003). Original Articles : The Relationship among Personality Type,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 Health Nurs*, 12(4), 385-393.

[21] J. S. Koo & U. C. Kim. (2006). Happi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 students and adult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2(2)*, 77-100.

[22] G. Downey & S. Feldman.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70, 1327-1343

[23] G. Y. Park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rejection sensitivity and school happiness.* Pusan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4] H. N. Choi & M. Seo. (2019).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ocial Science, 22(1)*, 23-60.

[25] N. Mor & M. Inbar (2009). Rejection Sensitivity and Schema-congruent Information Processing Bias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3)*, 392-398. DOI: 10.1016/j.jrp.2009.01.001

[26] J. M. Kwon (2013). *The relation of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 and emotional experssion: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Yeung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27] E. K. Park & H. Y. Seon. (2018). An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 on Rejection Sensitivity.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4)*, 735-754.

[28] Y. H. Jun. (2020). Influence of Compass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on Ego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0)*, 1-15.

[29] K. Seo. Influence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Compassion Competence on Social Connections of Nursing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4)*, 499-510

[30]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31] B. J. Jeon.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 109-129.

[32] M. J. Park & N. Yang. (2017). Validation of Rejection Sensitivity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9(1), 103-127.

[33]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34] G. Y. Jo, & H. S. Park. (2011).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1)*, 160-169.

[35] S. L. Kim, J. E. Lee (2005).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1)*, 98-106.

[36] H. S. Park. (2018). Associations of Vocational Call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Major Commitment with th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Major Commitment.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7(4)*, 332-341. DOI: 10.12934/jkapmn.2018.27.4.332

[37] Y. J. Lee & B. M. Seo. (2018).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Rejection Sensitivity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9)*, 156-165. DOI: 10.5762/KAIS.2018.19.9.156

[38] H. N. Choi & M. Seo. (2019).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ocial Science 22(1)*, 23-60.

[39] E. J. Kim & G. M. Kim. (2020). Subjective Happiness according to Temperament and Character Type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8(2)*, 76-83. DOI: 10.17547/kjsr.2020.28.2.76

[40] S. O. Kim. (2016). Influence of Positive Thinking and Subjective Happiness on School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0(3)*, 395-404. DOI: 10.5932/JKPHN.2016.30.3.395

[41] H. R. Cha & J. N. Kim. (2016). The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on Interpersonal Problems in College Student :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Youth Studies, 23(12)*, 373-401. DOI: 10.21509/KJYS.2016.12.23.12.373

[42] S. M. Kim & S. O. Kim. (2017). Factors influencing meaning in lif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3(1)*, 57-65. DOI: 10.5977/jkasne.2017.23.1.57

이 윤 주(Yun Ju Lee) [정회원]

· 2008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의료사회복지학과(석사)
· 2014년 2월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박사)
· 2014년 2월 ~ 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우울, 자살, 직장 내 괴롭힘, 대인관계
· E-Mail : sunshine@jeiu.ac.kr

안 성 윤(Sung-Yun Ahn) [정회원]

· 2001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4월 ~ 현재 : 배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수면, 정서, 청소년, 중독, 스트레스
· E-Mail : syahn@pcu.ac.kr